Ⅰ 왜 동남아시아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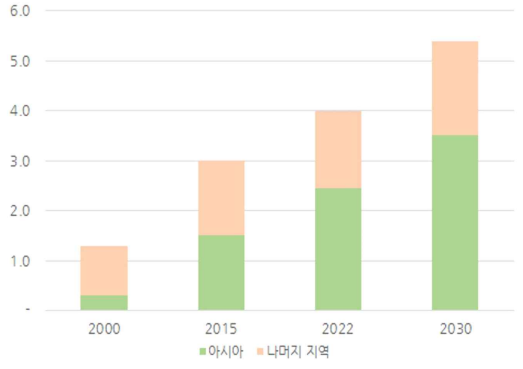
1. 보험수요와 중산층 증가

○ 보험수요는 중산층 증가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,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, 이하 'ASEAN'이라 함)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(SwissRe 2022)

- 1950년대 전 세계 중산층의 90%는 유럽과 북미에 거주하였으나, 2015년 30억 명인 중산층 인구가 2022년에는 40억 명에 이르렀는데, 늘어난 10억 명의 대다수는 아시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됨(Kharas 2017; Kharas and Dooley 2020)

〈그림 Ⅰ-1〉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 및 전망

(단위: 십억 명)



자료: Kharas(2017) 수정 인용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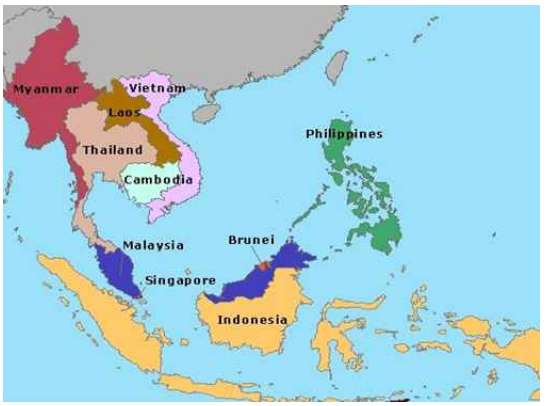
〈그림 Ⅰ-2〉 2015~2022 중산층 증가의 지역별 기여

(단위: 십억 명)

주: MENA는 중동·북아프리카, SS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임
자료: Kharas(2017) 수정 인용함

- 인도, 중국과 함께 ASEAN은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을 주도함
  - ASEAN의 인구 규모는 인도의 절반에 불과하나, GDP는 인도의 1.3배로 연평균 5%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
  - 특히, 말레이시아, 태국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(이하 '아세안 5'라 함)은 ASEAN 전체 인구의 87.3%, GDP의 83.4%를 차지하면서 ASEAN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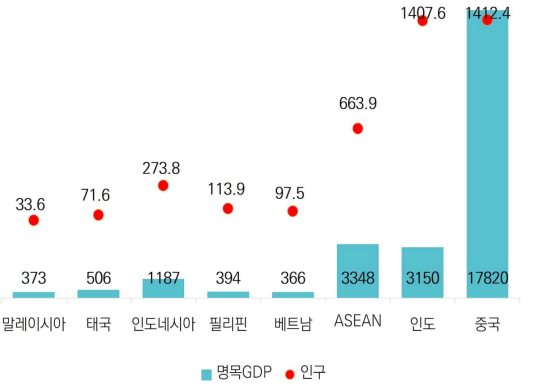
〈그림 Ⅰ-3〉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 10 개국



자료: ASEAN-KOREA CENTRE(2022)

〈그림 Ⅰ-4〉 ASEAN 인구 및 경제규모(2021)

(단위: 십억 달러, 백만 명)



자료: World Bank Dat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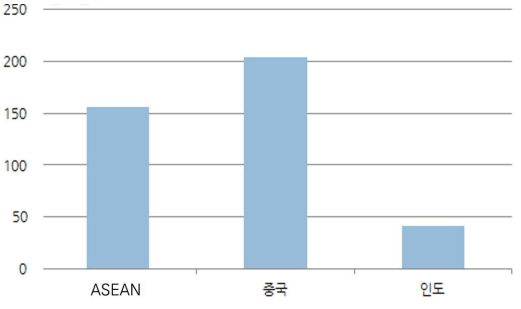
2. 아세안 경제공동체

○ 2015년 ASEAN은 유럽연합(EU)을 모델로 하는 정치·안보, 사회·문화, 경제의 3대 공동체 비전을 발표하여 단일 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역내 규제개혁을 진행 중임

- 공동체 구상을 통해 ASEAN은 중국과 인도 경제의 부상과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대응하고, 해외 직접투자 유치와 역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(라미령 외 2021)
- ASEAN이 유치한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인도의 3배 수준이며, 투자의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ASEAN 역내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(PwC·삼일회계법인 2020)

〈그림 Ⅰ-5〉 해외 직접투자 순유입(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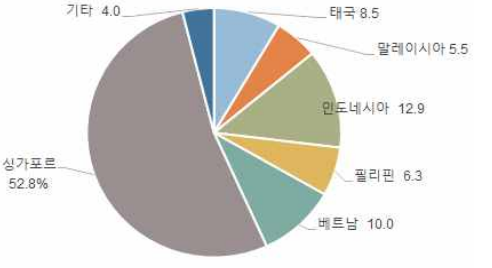
(단위: 십억 달러)



자료: PwC·삼일회계법인(2020)

〈그림 Ⅰ-6〉 ASEAN 유입 해외 직접투자 구성(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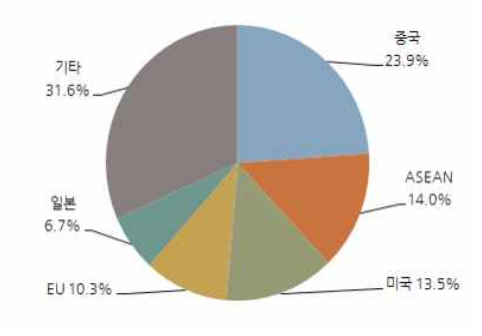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PwC·삼일회계법인(2020)

○ 한국에 있어 ASEAN(14.0%)은 중국(23.9%)에 이어 2대 교역지이고, ASEAN에 있어 한국(6%)은 중국(23%), 미국(9%), 일본(8%)에 이어 4대 교역지로서 한국과 ASEAN 간 활발한 교류 활동은 국내 보험회사의 ASEAN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임(PwC·삼일회계법인 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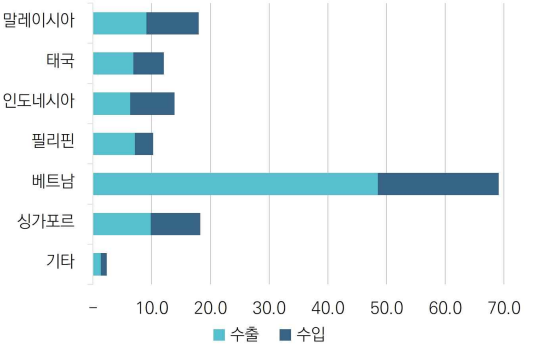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Ⅰ-7〉 한국의 주요 교역국(2021)



자료: ASEAN-KOREA CENTRE(2022)

〈그림 Ⅰ-8〉 한국-ASEAN 무역량 추이(2020)

(단위: 십억 달러(USD)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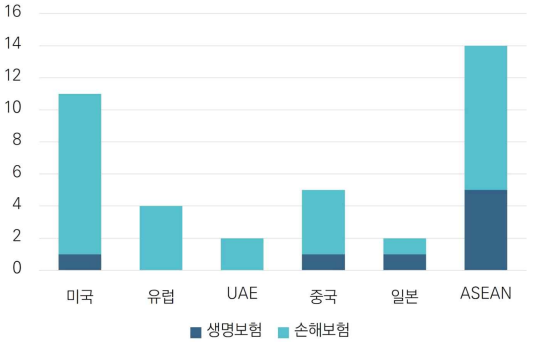
자료: ASEAN-KOREA CENTRE(2022)

○ 이에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도 ASEAN 지역이 14개 사로 가장 많아, 이 지역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수요 및 공급과 관련한 지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

- 특히 말레이시아, 태국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의 아세안 5 보험시장을 비교·평가함

〈그림 Ⅰ-9〉 국내 보험회사 해외진출 현황(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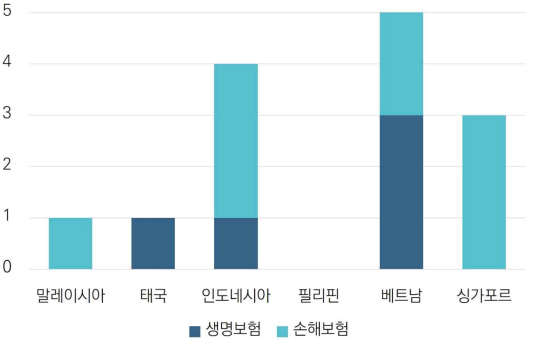
(단위: 개)



자료: 오병국(2023)

〈그림 Ⅰ-10〉 국내 보험회사 ASEAN 진출 현황(2021)

(단위: 개)



자료: 오병국(2023)